

# 高靈 古建築의 性格과 齋室建築

조재모\*

## 차례

- I. 들어가며
- II. 고령지역 고건축의 현황
- III. 19세기의 고령지역 재실건축
- IV. 맺는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령지역의 전통건축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주로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조사사업을 통해 목록화된 사례를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며, 관련 기관에서 발간된 목록자료를 참고하였다. 고령의 고건축은 그 수량과 문화재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주목되는 대상군은 아니다. 지정된 건축문화재의 수도 적은 편이고 시기적으로도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쌍림면 일대에 대부분의 고건축물 사례가 위치하였고 성산면, 덕곡면, 고령읍 일대에도 일부 사례가 위치하였다. 고건축의 주 분포지역은 교통로와 인구 상황에 크게 영향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적으로는 역시 재실과 누정인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고령의 고건축은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고령의 지역성이라 지칭할만한 특징도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는 연령에만 놓여 있지 않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고령의 재실 건축은 주목되는 사례군이다. 재실은 묘제를 위해 지어진 보조시설로 조선후기에 들어 전국적으로 영건되었다. 그간 안동의 □지형 재실만이 주목되어 왔지만, 고령의 일자형 재실은 이와는 다른 지역적인 건축유형으로

\*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자리 잡았다. 고령의 일자형 재실은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의 사회 모습과 건축행위의 특성에 직결되는 특징이다. 재실의 영건이 문중의 현창사업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조선후기의 씨족중심 향촌사회가 갖고 있던 속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좌우 대칭의 고전적 담론보다 민가형 재실유형을 선택하고 정면 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실의 의장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태도에서는 현실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합리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어찌면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일자형 재실이 폭발적으로 건립되며 고령의 대표적 건축유형으로 자리 잡았던 사실 그 자체가 고령 고건축의 솔직한 면모이자 주목해야 할 특징이다.

#### 주제어

재실, 재실건축, 정면, 비대칭형 평면, 19세기, 조선후기

## I. 들어가며

본고는 고령에 존재하는 古建築<sup>1)</sup>을 대상으로 그 성격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최근 들어 지역학이 주목되는 것은 아무래도 수년간의 지방자치체가 찾고 있는 자생의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맹목적 실용화나 산업화의 관점이 우려스럽지만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특히나 주류와 선도만을 주목하기 십상인 거시담론에서 탈피하여 미시적 역사문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지역학이 요긴한 통로로 작동한다. 계급이나 이념만큼이나 강력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는 京鄕의 이원적 구조는 학문의 태도에도 여지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고건축이라는 표현은 항상 적절치 않다. 현재와의 괴리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하게 쓰이는 전통건축이라는 단어 역시 한계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기법으로 지어진 건축'의 의미를 뜻하는 마땅한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건축이 갖고 있는 복합성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고건축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되 의미상 현재와도 소통되는 건축이라는 뜻을 추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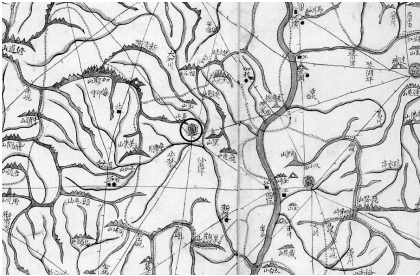
웅당 지역학의 과제는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존재 가치와 차별적 특징을 도출해내어야 하는 것이겠으나, 종종 그 '지역'이라는 단위가 독립적인 단위로 기능할 만큼 충분히 풍부하거나 차별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칫하면 '우수성'에 대한 과대한 욕심으로 객관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과 연구의 태도에 따라 '고령의 고건축'이라는 주제 역시 고령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건축의 특징일수도, 그저 고령에 있는 고건축의 나열일수도 있다. 본고는 전자의 의미를 의도하면서 고령지역이 갖고 있는 고건축의 현황과 성격,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현존하는 고령의 고건축은 시대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극히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 원고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 즉 현존하는 주요 사례들만으로 이것이 고령 고건축의 특징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령'과 '고건축'은 모두 익숙한 단어들이었으면서도 이들의 조합인 '고령의 고건축'이라는 주제는 꽤 생소한 느낌이다. 그것은 아마도 고령과 고건축 양자가 갖고 있는 고착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가야를 떼어 놓고는 고령을 이야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고령은 가야와 직결되어 있다. 집중력이 높은 강력한 이미지는 다른 문화사적 경향의 존재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한편 고건축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든 현대적인 용어로서의 '전통'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 서원, 향교, 고택, 정자 등 조선중후기의 건축 문화적 이미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고건축은 시대적, 건축형식적인 측면에서 인식의 괴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합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고건축은 분명히 조선후기 이후의 사례들이며, 구조적으로는 목가구조라 불리는 범주 속에 포함된 것들이다. 가야의 유산을 다루지 않는 것은 하나의 맥락으로 다루기엔 너무나 큰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현재 고령 건축과 경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조선시대 고령의 건축문화를 객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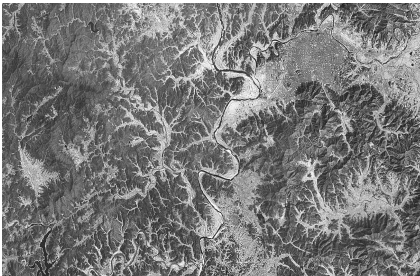
조명하고, 고착적 이미지의 유교 건축사 전통을 모든 지역이 추구해야 할 것 같은 관념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

## II. 고령지역 고건축의 현황

### 1. 고령 지역개관



〈그림 1〉 《大東全圖》 고령 일대



〈그림 2〉 고령의 지형

고령군은 경상북도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쪽은 128°28'54"의 다산면 호촌리, 서쪽은 128°09'36"의 쌍림면 산주리, 남쪽은 35°36'32"의 우곡면 객거리, 북쪽은 35°50'53"의 다산면 노곡리의 지리적 경계 속에 존재한다. 북으로는 성주군, 남쪽과 서쪽으로는 합천군에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광역시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 『고령군지』에는 고령군의 지형에 대해 “서부와 남서부는 군의 경계를 따라 소백산맥의 지맥에 해당되는 비교적 높은 산맥이 형성되어 있고 중앙부

는 澗川과 그 지류들이 합류되면서 형성된 분지상의 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부지역은 경상계 지질로 된 300m 이하의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군의 동쪽 경계인 낙동강 본류 연변에는 낙동강이 형성한 범람원이 상당히 넓은 폭

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sup>2)</sup> 지형과 인접지와의 교통 등으로 볼 때, 고령군은 경상북도의 북부지방보다는 오히려 경상남도의 서북부지방과 가까운 편이다.

조선시대 말까지 고령은 지금과 같은 영역이 아니었다. 현재 고령군의 일부는 성주목이나 현풍 등에 속해 있었는데, 고령이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에 전국을 23부로 개편하면서 ‘고령군’이라는 이름을 얻은 때부터이다. 당시 고령군은 대구부의 22개 군 중의 하나였는데 1896년에 이르러 23부를 13도로 개편하면서 경상북도의 41개 군 중의 하나로 변경되었다. 1913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다시 행정구역이 정비되면서 성주군의 덕곡방, 인곡방, 흑수방, 운라방, 도장방, 소야방, 가현내방, 벌지방, 다비방과 현풍군의 진촌방, 답곡방, 왕지방 등 지금의 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일부, 우곡 일부 등지가 통합되어 현재의 행정구역이 완성되었다.<sup>3)</sup>

역사적으로 고령의 인구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완전하지 않은 기록이지만 세종조를 전후하여서는 대략 586호 5,653명의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sup>4)</sup> 조선중기 이후에는 비교적 정확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영조년간의 『여지도서』에는 고령현에 2,546호 10,876명<sup>5)</sup>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1925년 54,531명에서 1944년 50,731명으로 감소추세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증가하여 1966년에 76,093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 기준 35,925명이 거주하고 있다.<sup>6)</sup>

2) 박태화, 「제1편 지리」, 『고령군지』, 고령군, 1996, pp.73~74.

3) 앞의 책, p.85.

4)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기록에 근거함. 『고령군지』 p.83에서 재인용.

5) 현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일부, 우곡면 일부 등 당시 타 지역에 속해 있던 부분을 제외한 통계수치이므로 정확하지 않다.

〈표 1〉 고령의 인구(2008년 기준, 고령군청 홈페이지)

읍면	고령	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우곡	쌍림	합계
인구	10,503	1,545	2,240	3,093	9,513	2,468	2,064	4,499	35,925

## 2. 고령지역의 문화재 현황과 고건축 목록

전술했듯이,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고건축’은 전통 기법으로 건축된 목가구조 건축물로서 고령군 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수가 많은데다가 모든 건물의 연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 및 2005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체조사사업의 대상이었던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령문화사대계』 2권 사상편의 부록편에 수록된 「고령지역의 유교건축」, 『고령의 서원과 정·재』 등의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다루고자 노력하였다.<sup>7)</sup>

단적으로, 고령지역은 경상북도의 시군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고건축이 극히 적은 편에 속한다. 만남재(유형문화재), 죽유종택(기념물), 점필재종택(민속자료), 벽송정, 도연재, 고령향교, 장육당(이상 문화재자료) 등 7종만이 목조 건조물류 문화재에 해당되는데, 이는 40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178개에 이르는 목조 건조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안동시와 비교하면 대단히 적은 수라 하겠다. 〈표 2〉는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각

6) 고령군청 홈페이지.

7)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정보화시스템(<http://www.chis.go.kr>),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 편,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체조사사업』 보고서, 문화재청, 2005.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고령문화사대계』 2권 사상편, 2008.  
고령문화원, 『고령의 서원과 정·재』, 만인사, 2003.  
고령군, 『고령군지』, 1996.  
고령군 등, 『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1997.

시군의 지정문화재 분포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이 표에는 건조물문화재 이외의 수많은 종류의 동산, 부동산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단순비교만으로도 고령군 문화재 분포현황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군은 울릉군과 칠곡군에 이어 3번째로 적은 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령의 지정문화재 27개 중, 보물로 지정된 것은 지산동 당간지주, 양전동 암각화, 죽유 오운 종손가 소장문적 등이다. 사적으로는 주산성, 성산사 부동 도요지, 성산 기산동 도요지, 지산동 고분군, 고이동 벽화고분 등이 있다. 이 밖의 중요민속자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을 일괄하여 보면 주로 고대 유적과 불적, 문적과 판목, 요지 등이 많고 목조건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7종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이 적다는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겠으나 대체로 이 지역의 건조물들이 오래되었거나 기법적으로 뛰어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크게 틀리지 않은 판단이다.

〈표 2〉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분포현황(2009. 1. 1. 현재 / 출처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市郡別	計	國家指定文化財									道指定文化財					文化財資料
		小計	國寶	寶物	史蹟	史蹟 및 名勝	名勝	天然記念物	重要無形文化財	重要民俗資料	小計	有形文化財	無形文化財	記念物	民俗資料	
計	1,768	584	52	276(2)②	101	3	11	60(1)	12(4)	69(1)	649	361④	28	139③	121	535
浦項市	53	13	1	4(1)	2			3	2(1)	1	20	10①		8	2	20
慶州市	309	212	31	82	76	2		3	2(1)	16	54	30①	3	17	4	43
金泉市	49	17	1	15				1			14	9	3	2①		18
安東市	284	76	4	35	2		1	7	2	25	132	65	5	17	45	76
龜尾市	76	12	1	5①	2		1	2		1	34	19	1	7①	7	30
榮州市	110	38	7	22	4		1	3		1	40	28	1	4	7	32
永川市	77	22	1	16				1		4	41	30		8	3	14

尙州市	80	18		15①	1			2			41	14	1	19	7	21
閔慶市	63	17		9(1)	1		2	2	2(1)	1	27	17	3	6	1	19
慶山市	28	11		6	3			1	1		10	5	1	4		7
軍威郡	30	5	1	3	1						11	8		2	1	14
義城郡	49	8	1	4				2		1	23	19①		4		18
言松郡	41	9		1			1	4		3	14	7	3	1	3	18
英陽郡	52	7	1	2				3		1	17	7		4	6	28
盈德郡	67	3		2						1	24	9	1	5	9	40
淸道郡	68	25		17				6(1)		2	28	16	2	9	1	15
高靈郡	27	9		3	5					1(1)	10	6		3	1	8
星州郡	64	7		2	2			1	1	1	33	16①	1	8	8	24
漆谷郡	22	6		4	1			1			9	7		2①		7
醴泉郡	83	28		17			3	3	2(1)	3	28	19	2	2	5	27
奉化郡	88	18	1	8	1	1	1	1		5	29	14	1	3	11	41
蔚珍郡	31	13	2	4			1	6			8	6		2		10
鬱陵郡	17	10						8		2	2			2		5

※ ( ) 내는 동일 문화계가 타 시도와 분산 지정된 건수이며, ○ 내는 시군간 분산 지정된 건수임

2005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어 가고 있는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료를 DB화 한다”, “조사결과와 분석, 검토를 통한 문화재 지정 등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수행되었다.8) 이 사업을 통해 고령군의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들도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령군의 경우에는 15개의 사묘재실, 1개의 누정각당, 2개의 서원, 1개의 사찰, 1개의 석조탑과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9) 하지만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사업의 조사대상은 “조선시대 및 그 이전에 조성된 석조 및 목조의 건조물로서

8)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2005. p.1 조사개요 참조.

9) 화산재, 추우재, 모졸재, 경구정, 모예정, 사우재, 누암재, 지지재, 후송재, 향림정, 황산재, 죽포서당, 문연재, 죽연정사, 염수재, 장육당, 학음서당, 노강서원, 반룡사 지장전과 부도군 등이 대상이었으며, 대경대학 조영화 교수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한정되었으며<sup>10)</sup> 충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사례들은 아무래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사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사례들 중에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건축물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비롯하여 『고령군지』, 『고령의 서원과 정·재』, 『고령문화사대계』의 2권 사상편 부록 등<sup>11)</sup> 관련 자료를 총괄하여야 비로소 고령에 존재하고 있는 고건축의 대강을 목록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기초조사 목록을 작성하였고 그 중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자료에는 도처에 산재해 있는 가옥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재실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비교적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1996년의 자료에는 고령군의 가옥 중 75.8%인 14,363동의 가옥이 한옥으로 분류되어 있다.<sup>12)</sup> 이들 ‘한옥’은 새롭게 건설되기보다는 대체로 오래된 노후가옥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존의 가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들 가옥이 멸실되기 전에 기초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고령 고건축의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 분포 양상

앞서 말했듯이, 본 절에서 다루는 고령의 고건축은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사업에 의해 조사된 사례를 중심으로 목록화된 것이며, 관련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목록을 참조자료로 활용하여 가급적 폭넓은

10) 대신 조선시대 이후의 사례들 중에서도 일부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11) 『고령군지』, 『고령의 서원과 정·재』, 『고령문화사대계』의 자료목록은 내용이 거의 같다.

12) 『고령군지』, p.126 <표 26> 참조.

사례를 다루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두 개의 레벨로 분류하였는데, 1차 조사대상은 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조사대상 및 경북서원지 등에 소개된 일부 보완 사례로 하였다. 2차 조사대상은 각종 자료에서 목록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로서 주로 20세기에 들어 건설된 재실이다.<sup>13)</sup>

1차 조사대상 총 30개의 목록과 간략한 정보, 그리고 지리적 위치는 <표 3> 및 <그림 3>과 같다. 건축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지만 대체로 조선후기 혹은 그 이후에 영건된 사례들이다.<sup>14)</sup> 만남재, 장육당 등 17~18세기에 영건된 것으로 전하는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9세기 후반 이후에 영건된 건물들이라는 시기적 특징이 있다. 늦게는 20세기에 이르러 영건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매립서원, 도암서원 등의 서원들은 초건 연대는 17~18세기이지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1868년 일괄 훼손되었다가 근년에 들어 복설된 사례들로 건축물의 연령적 가치는 떨어진다. 행정구역으로는 쌍림면에 15개소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밖에 다산면 6개소, 고령읍 4개소, 우곡면 2개소, 운수면, 덕곡면, 개진면이 각 1개소 존재한다. 쌍림면, 고령읍 일대는 경상남도 합천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 변이라는 지리적 이로움이 있으며, 다산면은 낙동강 연안의 풍광과 더불어 조선후기의 경상 감영처였던 대구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이 일대에 건축유산이 비교적 다수 존재하는 동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 문화재적 가치나 인지도 등으로 볼 때 1차 조사대상이 2차 대상에 비해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차 조사대상이 시기적으로 20세기의 것들이 많고 건축적 수법이 뛰어나거나 특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고령군 건축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진행에서는 1차 대상에 대해서는 실측을 통한 평면형의 구체적인 분석까지 시도하였으나 2차 대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한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14) 벽송정 등 매우 이른 시기에 영건된 사례도 있으나 현존 건축물의 연대는 오래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표 3〉 고령지역 고건축 1차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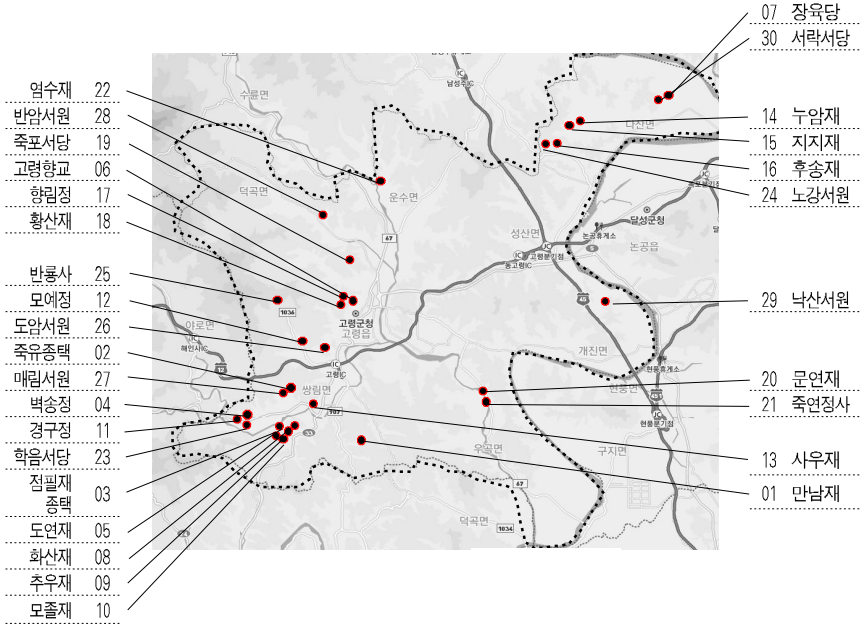
연번	명칭	소재지	연대	가문/인물	비고	출처	정면칸수
01	만남재	쌍림면 평지리 241	1670	고령박		A	4
02	죽유종택	쌍림면 송림리 96-2	1906	고창오	1906중수, 1920이건	A	5
03	점필재종택	쌍림면 합가리 84	1800	선산김		A	6(8)
04	벽송정	쌍림면 신촌리 산84	미상	—	57초건/1920이건	A	3
05	도연재	쌍림면 합가리 112	1866	선산김		A	5
06	고령향교	고령읍 연조리 608	1702	—	1702이건/1819중수/1840변형	A	5
07	장육당	다산면 상곡리 478-2	1632	전의이	이후 무신년 중수	A	—
08	화산재	쌍림면 합가리 117	1880	선산김		B	6
09	추우재	쌍림면 합가리 145	19C후	선산김		B	3
10	모졸재	쌍림면 합가리 84	19C후	선산김		B	4
11	경구정	쌍림면 하거리 441	1880	고령박		B	6
12	모예정	쌍림면 월막리 114	1957	현풍곽		B	4
13	사우재	쌍림면 귀리리 85	19C후	전주이		B	5
14	누암재	다산면 별지리 1061	1880	성주이		B	3
15	지지재	다산면 별지리 1054	1870	경주김		B	5
16	후송재	다산면 송곡리 438-1	1938	창녕조		B	3
17	향림정	고령읍 지산리 148	1848	경주김	1899이건	B	5
18	황산재	고령읍 지산리 344-1	1831	진양정		B	4
19	죽포서당	고령읍 본관리 335	1977	성산이		B	5
20	문연재	우곡면 도진리 49	19C후	고령박	원래 서원	B	3
21	죽연정사	우곡면 도진리 101	1939	고령박		B	4
22	염수재	운수면 대평리 806	1839	절강시		B	5
23	학음서당	쌍림면 하거리 626	1810	고령박		B	4
24	노강서원	다산면 송곡리 945	최근	송시열		B	4
25	반룡사	쌍림면 용리 187	1930	—	802창건, 1764중건	B	—
26	도암서원	쌍림면 고곡리	1975	김면/이기춘	1666초창/1868훼손	C	5
27	매림서원	쌍림면 송림리	1984	오선기/곽수강	1707초창/1868훼손	C	6
28	반암서원	덕곡면 반성리	1995	동래정	1832초창/1868훼손	C	5
29	낙산서원	개진면 인안리	1952	배신	낙천 배신	C	4
30	서락서당	다산면 상곡리	20C	이종기	만구 이종기(1837-1902) 관련	기타	5

※ 출처 A :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B : 비지정문화재자료집 C : 경북서원지

기능적인 분류로는 점필재종택, 죽유종택 등 주거건축, 종교건축인 반룡사 등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다. 대신 교육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향교, 서원, 서당, 그리고 누정, 재실 등의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 건축문화재의 분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기능과 건립시기를 함께 살펴보면, 주거나 교육시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영건되기 시작하였는데 비해 재실은 19세기에 들어 비약적으로 영건되는 경향이 강하다. 오용원은 고령지역의 누정건축을 논하면서 그 기능을 ① 유식과 장수의 기능, ② 강학과 수학의 기능, ③ 화복과 선양의 기능 등으로 구분하고 시기적으로는 “19세기에 이르면서 爲先 사업을 통한 문중의 화합을 목적으로 건립된 누정은 점차 건물의 규모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체수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16)</sup>

15) 누정과 재실의 용어적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고령문화사대계』 2권 부록의 「고령의 유교건축」 편에서는 재실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이는 『고령의 서원과 정·재』, 『고령군지』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오용원은 「고령 누정의 문학적 해석과 공간 기능」(『고령문화사대계』 3권 연구편, 2009)에서 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이들 건축물의 기능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오용원은 이에 대해 “누정의 공간적 기능은 한 누정에서도 건립 초기의 공간 기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건립 초기에는 강학의 목적으로 건립하였지만 중수, 이건, 퇴락의 전철에서 기능도 변화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재실 정도의 누정도 건립 초기에는 강학이나 장수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누정이 상당수에 이른다. 결국 누정의 공간적 기능은 오늘날에 이르러 상당히 퇴색되어 건립 초기의 문화 원형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째서만이 가능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6) 오용원, 앞의 글, p.266.



〈그림 3〉 고령 고건축의 공간적 분포상황(1차 조사대상)

이러한 경향성은 2차 조사대상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17) 2차 조사대상은 총 133개의 사례로 대부분이 근년까지 영건되어온 문중 재실들이다. 18) 이들 중에는 건립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채 효종년간, 선조년간 혹은 16~17세기로 전하는 사례들도 있으나 대부분 초창연대를 말하는 것이고 현존 건물은 거의 20세기에 들어 영건된 사례들이다. 간혹 연대가 좀 빠른 것으로 19세기 말의 사례들이 있다. 지리적으로는 역시 쌍림면이 24개소로 가장 많은 수의 재실이 존재하고 있고 성산면이 23개, 덕곡면이 20개, 고령읍이 19개, 개진면과 우곡면이 각 15개, 다산면이 9개, 운수면이

17) 2차 조사대상은 별표로 첨부하였다.

18) 각종 자료의 목록에는 존재하나 이미 소실된 7개의 사례는 제외하였다.

8개 순이다. 가장 많은 재실이 위치한 쌍림면과 성산면은 대구, 합천, 성주 등지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1차 조사대상에는 하나의 사례도 위치하지 않았던 성산면에 20세기 들어 누정이나 재실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각 읍면의 인구수와 1차, 2차 조사대상 중 누정, 재실의 수를 약산해보면,<sup>19)</sup> 군내 읍면 중 덕곡면이 77.3명당 1개소로 누정과 재실의 인구당 밀도가 가장 높고 다산면이 792.8명당 1개소로 가장 낮은 밀도였다. 고령군 전체의 평균은 239.5명당 1개소의 누정이나 재실이 있는 셈이다.

고령 고건축의 현황을 정리하면, 시기적으로는 19세기에 들어 현존하는 대부분의 고건축물이 영건되었고, 공간적으로는 쌍림면이 가장 많은 수의 고건축이 넓은 시기에 분포하며 영건되었다. 성산면과 덕곡면, 고령읍 등의 주요 영건 사례는 대체로 19세기 이후에 세워진 재실들이었다. 고건축의 주 분포지역은 교통로와 인구 상황에 크게 영향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적으로는 역시 재실과 누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다.

### Ⅲ. 19세기의 고령지역 재실건축

#### 1. 조선후기 재실건축의 유형

재실이 등장한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가능하다. 재실이라는 단어가 사료에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하면 삼국시대의 시조묘나 조선초기의 왕릉재실, 혹은 불교적 시설인 원당이나 재암에 그 연원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재실은 봉분 형태의 묘소를 갖고 있고, 묘제를 거행하며, 사대부 계층이 주도하는 문중의 시설이라는 보편성을 갖고

19) 유사한 기능이라도 서원, 서당 등으로 명명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있다.<sup>20)</sup> 이러한 유형의 재실은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건립되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역사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재실의 영건이 사회적으로 유행한 것은 17세기 정도의 일이라 할 수 있으며, 17~18세기에 걸쳐 200년의 기간은 향촌에서 재실의 영건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sup>21)</sup>

이 시기에 재실이 유행하는 것은 씨족마을의 성립, 발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조선후기에 들어 향촌사회가 씨족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문중의 연대감 확대와 현장을 위한 각종 장치들이 필요하였다. 특히 당쟁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은 씨족일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하겠다. 건축적으로 보면 서원, 사우, 정려, 제각 등이 활발히 건립되었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상·제례 의식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하나였다. 제사는 장자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이자 권리였으며 이를 통해 문중의 주도적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받았다. 특히나 17세기 이후 장자중심의 상속이 유행하면서 씨족마을은 더욱 번성하였다.<sup>22)</sup> 종가는 씨족마을의 의식적, 공간적 중심점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혈연집단의 유대가 형성, 강화되었다. 15세기부터 영건되기 시작했던 서원도 그 영건지향점이 변화하고 있었다. 이때의 서원은 퇴계의 서원보급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의 서원과 달리 학맥과 사승에 의한 관계보다는 혈연적 관계에 근거하여 영건된다는 차

20) 유기원, *안동문화권 재실건축-건축적 형식과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 pp.14~15.

21) “문중재실의 마련은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 일반화되는 역사적 산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17~18세기에 일반화된 서원, 사우의 건립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가문의 지위를 높이며 또한 당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지역의 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김지민, 「전남지방의 재실건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3호, 1997. 3.

22)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224.

이가 있으며, 숙종이 재위한 40년간 무려 295곳의 서원이 영건되었다는 것은 경쟁적 문중 현창의 양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건축적으로도 서원의 주된 공간구성요소였던 강당과 사당 중에서 사당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점차로 서원보다는 사우나 영당과 같이 배향의 기능만을 갖는 시설을 영건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 시기 사회와 건축행위의 기제는 결국 혈연의 문제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재실의 영건은 유행을 맞이하였다. 특히 재실이라는 건축유형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재실이 서원 등에 비해 비교적 쉽게 영건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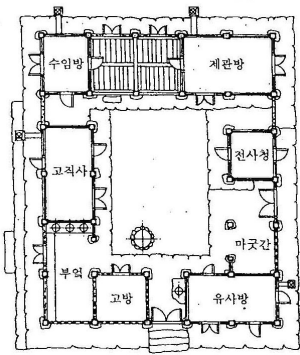
재실은 墓祭<sup>23)</sup>와 결합되어 있는 건축유형이다. 평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물이지만, 그 자체로 제례의 공간으로 쓰이기보다는 묘소에서의 제사를 보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용성을 근간으로 삼는 건축유형이다. 하지만 동시에 재실을 영건함으로써 문중의 사람들이 결속력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상징적인 역할도 함께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재실은 실용성을 우선으로 하면서 상징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건축유형인데, 그 건축적 해결 방식은 시기와 지역, 문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제수의 준비, 우천시 묘제의 대행, 묘제시 참제인들의 유숙, 평상시 묘소 관리, 묘지기의 거주 등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한다.<sup>24)</sup> 흔히 재실 혹은 齋舍의 전형적 형태로 이해되는 것은 안동지역의 대규모 재실인데, 대규모의 재실에는 樓와 강당, 그리고 주사 부분이 별도로 결합되었다. 하지

23) “묘제는 산소에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開元禮』에 “삼대 이전에는 묘제가 없다가 秦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무덤 옆에 침전을 지었는데, 한이 이를 이어받자 그 후로 풍습이 되었다. 그러다가 당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한식날 왕공이하의 拜掃 의식을 정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묘제의 시작을 알 수 있다.” 김숙영·홍승재, 「전북지방 재사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4호, 200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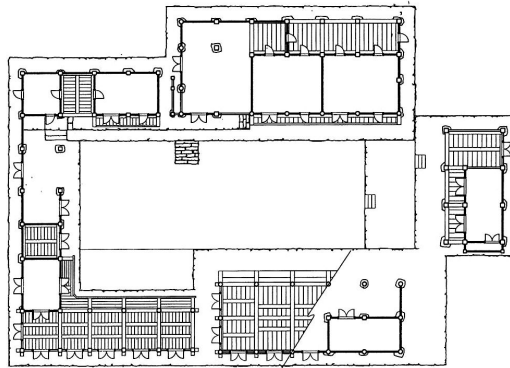
24) 천득염, 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 기문당, 2002, p.243.



만 이러한 안동지역의 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통용된 일반형은 아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안동의 지역적 특색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림 4〉 경북 안동 호암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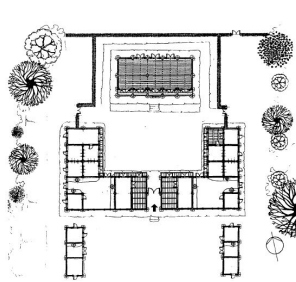
〈그림 5〉 경북 안동 송실재

재실건축에 관해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했던 김동인(1993)은 강당형, 민가형, 요사활용형, 복합형 등 4가지로 재실건축의 배치평면을 분류한 바 있다.<sup>25)</sup> 김동인의 분류법은 일곽의 배치를 기준으로 하여 큰 틀에서의 구성을 유형화한 것이다. 이후 김동인은 경남, 전남, 전북, 충청 등 타 지역 재실에 대한 연구를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sup>26)</sup> 유기원(2008)은 김동인의 분류법을 발전시켜 특수형, 분동형, 통합형, 별동형 등의 4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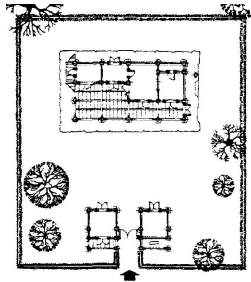
25) 김동인, 조선시대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동인은 경상북도 지역에 소재한 154개의 재실을 조사하여 구성유형을 분류하였다. 고평지역의 사례로는 덕곡면의 오로재, 쌍림면의 도연재, 운수면의 염수재 등이 포함되었고 모두 '사우기능 재실'로 분류되어 있다.

26) 김동인, 경상남도 재실건축연구, 고신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3집, 1993. 12. 김동인, 전라남도 재실건축연구, 고신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4집, 1994. 12. 김동인, 전라북도 재실건축연구, 고신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6집, 1996. 12. 김동인, 충청도지역 재실건축연구, 고신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8집, 199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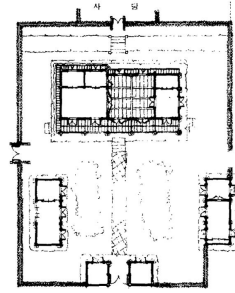
나 배치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같은 방법이며 안동지역에 국한된 논의라는 한계를 갖는다 하겠다. 이후 김지민, 김숙영, 전병일, 이상선, 이정자, 이정 등의 연구는 안동 혹은 경상북도 중심의 논의를 뛰어넘어 경남, 전남, 전북, 충청 지역 등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이정자의 경우와 같이 밀양이라는 국한된 지역에 집중하였다.<sup>27)</sup>



〈그림 6〉 전남 강진 영모당



〈그림 7〉 경남 고성 필산재



〈그림 8〉 전북 임실 귀후재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각 지역의 재실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지역성과 시대성, 혹은 집안의 고유성을 발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형의 재실은 안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유형이며 많은 지역에서 一자형의 단순한 강당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28)</sup> 하지만 一자

27) 전병일, 제례공간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충청도 지방의 재실을 중심으로, 대전대 석론, 2002.

이상선, 전남지방 재실의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론, 2003.

이정자, 경남 밀양지역 재실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밀양대 석론, 2003.

김숙영, 전북지방 재사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론, 2006.

이정, 조선시대 재실공간의 경관 및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 박론, 1996.

이정, 조선시대 재실공간의 입지 및 공간구조특성 분석—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67호, 1997. 10.

이정, 전라남도 재실공간의 입지와 경관특성, 남도문화연구 7집, 2001. 12.

28) “전남지역 재실의 건축구성은 향교의 명륜당과 같은 소위 “강당형” 건축으로 일관된다.

형의 구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의 형상만으로 정의하는 것일 뿐, 그 각각의 평면 구성은 상이하다. 아마도 이것은 재실이 외관상으로는 단정한 정형성을 요구받으면서도 내부의 공간은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어야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건축적으로는 복잡한 간살이의 형태로 나타난다. “강당과 행랑채라고 하는 두 개의 건축형식을 재실에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은 단정한 외관과 복잡한 평면이라는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해결책으로써 유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sup>29)</sup> 말하자면 재실의 건축형식은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특성을 드러낼 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 2. 고령지역 일자형 재실의 유형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지역에 존재하는 전통건축물의 대다수는 재실이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실이 영건되었고, 오히려 17~18세기의 재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례만이 조사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말의 시대적 분위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말에 이르러 양반 중심의 신분적 질서는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몰락한 양반 계층이 스스로의 체통을 지킬 여유가 없었던 것에 반해, 부유한 농민과 상민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양반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차별적 아이콘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자존을 삼기도 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만연하였다. 또 양반층에서도 서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영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원군의 서원철폐를 겪으면서 쉽게 서원영건이라는 무리수를 감

즉 중앙으로 대청을 드리고 그 양측으로 방 두 개가 꾸며지는 “일자형”의 단순한 구조가 재실의 본체로 건립된다. 본체의 규모는 ~ 보통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가 제일 많이 보인다”, 김지민, 「전남지방의 재실건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3호, 1997. 3, p.133.

29) 천득염·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 기문당, 2002, p.243.

행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축유형은 바로 재실이었다고 생각된다. 서원이나 사우가 배향되는 인물의 학덕과 인지도 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면, 재실은 묘제라는 보편적인 의례행위와 연관되어 있으며, 건축적으로도 소규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재실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는 일관된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되기보다는 강당<sup>30)</sup> 한 채와 문간 정도로만 구성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강당은 대개 一자형 전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일자형 재실은 보통 강당형, 즉 서원이나 향교의 강당과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고령지역의 재실 강당 역시 ‘강당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만남재, 염수재, 수양재, 농헌재, 용화재, 용강재, 이로재, 경모재, 모의재, 봉강정, 경효재, 율수재, 경언재, 와운정, 돈모재, 경학재, 삼학재 등은 모두 房－廳－廳－房의 정면 4칸 강당이거나 房－廳－廳－廳－房의 정면 5칸 강당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이다.<sup>31)</sup> 또, 이러한 유형을 축소하여 房－廳－房의 정면 3칸 구성을 갖는 재실도 낙락당, 모가정, 태국정, 회은정, 용강정, 죽림재, 승암재, 만모재, 반원재, 경심재, 도은재, 백봉재, 이남재, 구곡재 등 다수 존재하고 있다. 비율로만 보자면 이들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며 이를 이 지역의 대표형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강당형은 가장 보편적인 일자형 재실의 유형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것을 지역의 특징으로 삼기는 어려운 감이 있다.

비율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주목되는 사례는 5칸이면서도 房－廳－廳－

30) 김숙영, 홍승재는 강당 대신 元齋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숙영, 홍승재, 「진북지방 재사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4호, 2006. 4, p.235.

31) 특이하게 정면 6칸이면서 房－房－廳－廳－房－房의 구성을 갖는 사례로 매림서원 강당을 들 수 있다.

房-房 혹은 房-房-廳-廳-房의 구성을 갖거나, 4칸으로 房-廳-房-房 혹은 房-房-廳-廳의 구성이거나 이와 반대의 순서를 갖는 재실들이다. 이러한 구성은 비대칭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강당형보다는 민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학매정, 박곡재, 추모재, 경목당, 모의재, 덕산재, 의재, 관경재, 향림정, 죽포서당, 도암서원, 반암서원, 서락서당, 사우재 등은 모두 5칸의 房-房-廳-廳-房 계열에 속하는 사례들이며, 지지재나 도연재와 같이 이형에 속하는 5칸 비대칭의 구성도 있다. 4칸 房-廳-房-房 계열로는 모예정, 추모재, 동산재, 월주재, 봉산재, 묘원재, 경모재를 들 수 있다. 이들 전각 구성이 갖는 공통점은 통상적인 강당형 구성에서 마루를 줄이고 방을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4칸 비대칭 구성이면서 모졸재, 황산재, 죽연정사, 경송정, 옥산재, 옥계정 등은 房-房-廳-廳 계열로 분류되는데, 이 유형은 방과 청을 각각 2칸씩 결합함으로써 공간의 쓰임새를 좋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칸의 비대칭 사례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 경향이다. 추우재, 후송재, 문연재, 성동재, 일양재, 백록재, 고산재, 운고재, 추원재 등의 사례는 모두 房-房-廳 계열의 구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1칸의 마루만을 구성하고 나머지 2칸을 연결된 방으로 하여 대칭성을 깨뜨리는 대신 넓은 방을 확보한 경우이다. 말하자면, 고령군 재실의 전반적 특징은 대칭성을 강조하는 강당형이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도 비대칭의 민가형 재실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으며, 마루보다는 방의 활용도가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방과 마루 각각의 쓰임을 위해 단위 공간을 연결하여 2칸 규모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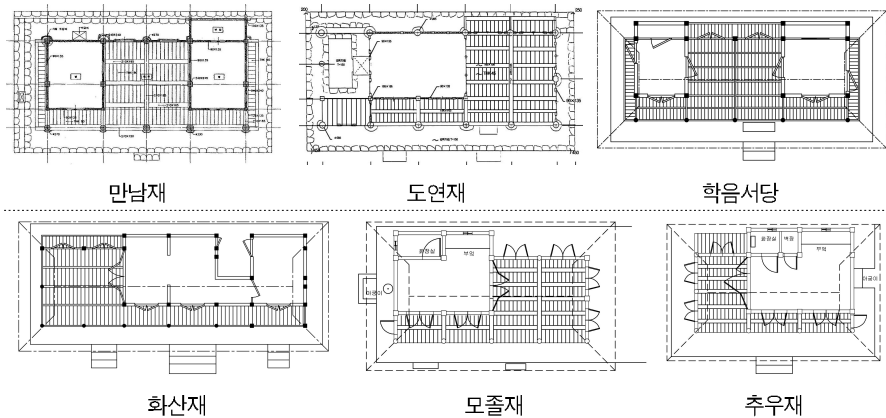
〈표 4〉 고령지역 재실 강당의 구성유형(서원, 서당, 향교의 강당 포함 / □ 房 ■ 廳 ⊗ 廚)

대청/ 비대청	정면 칸수	구성유형	사 례
대청	3		낙락당, 모가정, 매국정, 희은정, 용강정, 죽림재, 송암재, 만모재, 반원재, 경심재, 도은재, 백봉재, 이남재, 구곡재
	4		만남재, 수양재, 농헌재, 용화재, 용강재, 이로재, 경모재, 모의재, 봉강정, 경효재, 율수재, 경연재, 와운정, 돈모재, 경학재, 삼학재
	5		염수재, 고령향교
	6		매림서원
비대청	3		추우재, 후송재, 문연재, 성동재, 일양재, 백록재, 고산재, 운고재, 추원재
	4		모예정, 추모재, 동산재, 월주재, 봉산재, 묘원재, 경모재
			모출재, 황산재, 죽연정사, 경송정, 옥산재, 옥계정
	5		학매정, 박곡재, 추모재, 경목당, 모의재, 덕산재, 의재, 관경재, 향림정, 죽포서당, 도암서원, 반암서원, 서락서당, 사우재
			도연재
			지지재
	6		화산재
			경구정

※ 고령군 재실이 소개된 각종 자료를 통해 평면구성이 확인되는 사례에 국한하였고 일부 사례는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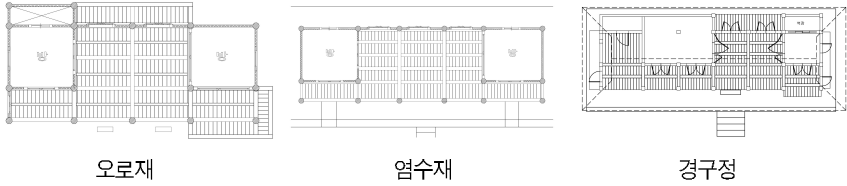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면 칸수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상 도리방향의 확장이 보방향 확장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정면 칸수를 확장하는 것이 공간규모 확대에 유리한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령군 재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점은 6칸 정면을 갖는 사례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매림서원, 화산재<sup>32)</sup> 등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평면 유형이다. 특히 경구정은 방과 마루를 번갈아 놓으면서 6칸의 정면을 구성하

였는데, 이는 아마도 고령지역의 주거건축 형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지역의 대표적 가옥문화재인 점필재종택의 안채는 방, 마루, 부엌 등이 연결된 6칸의 몸체에 양쪽으로 반칸 규모의 공간이 확장된 구성을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정면의 규모에 비해 측면 규모는 3량가로 이루어져 상당히 작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공간의 크기보다는 정면규모의 확장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집안보다 규모가 큰 재실을 경영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이 시기 재실건축의 특성인 소규모 민가형 혹은 강당독립형 재실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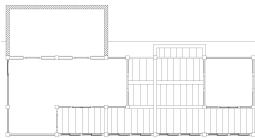


32) 현재 화산재의 평면구성은 원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좌우의 뒷마루 구성부재와 걸구 등 디테일에 차이가 있고 왼쪽에서부터 제5칸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실내에 복도 공간을 마련한 점 등이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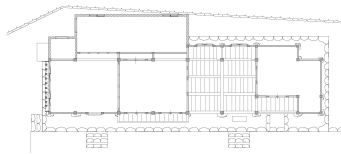
33) “(19세기 이후에 영건된) 재실건축들은 건축적 상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복합형 재실이나 요사활용형 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소규모 민가형 재실과 강당독립형 재실이 다수 건립되었다.” 김동인, 조선시대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159.



〈그림 9〉 고령지역 재실강당 평면사례



〈그림 10〉 죽유종택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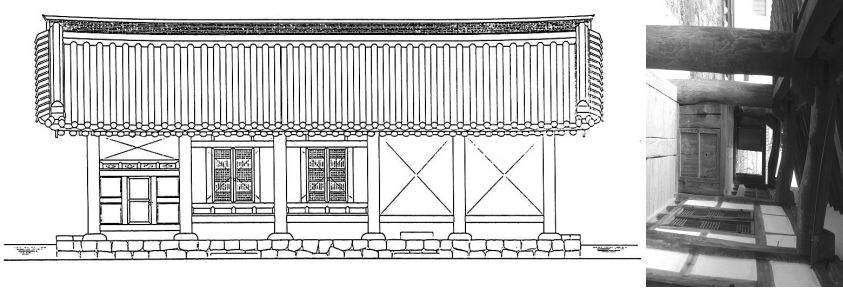


〈그림 11〉 점필재종택 안채 평면 및 상부가구



이러한 관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는 도연재이다. 도연재는 정면 5칸의 맞배 집인데, 평면상으로는 왼쪽에서부터 제1칸은 실내공간이 구성되지 않고 아궁이를 들였다. 그런데 정면 쪽으로는 별도의 소공간을 만들어 정면에서 보면 5칸의 실내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게 처리하였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도연재의 뒷보 결구방식인데, 다른 지역의 건축물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인근 화산재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정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구성법은 참제인실 등 방의 수요가 많기 때문, 그리고 동일한 면적의 건물이라면 길이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편리한 점, 그럼으로써 다른 집안의 재실보다 규모 상 커 보이는 효과 등을 의도하는 경향이 축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12〉 도연재 입면도 및 향좌 제1칸 공간구성

이처럼 일자형 민가형 혹은 강당독립형 구성은 고령지역 소재 재실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는 지역과 시대라는 두 개의 요인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5칸 내외의 일자형 비대칭 재실은 멀리서 충청, 전라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밀양, 거창, 함안, 의령, 진양, 함양, 창령, 하동, 산청 등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구성형이다.<sup>34)</sup> 경상북도권에서는 남부지역에서 주로 이와 같은 유형이 발견된다. 말하자면 고령지역의 일자형 재실은 경북 남부에서 경남 북부권 내륙에 걸쳐 있는 재실 평면형으로 취급할 만하다. 한편 이러한 구성을 시기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전술하였듯이 고령지역의 재실은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건립된 사례들인데, 이 시기는 대규모의 재실을 영건하기보다는 소규모의 일자형 재실이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였다. 대규모 재실이 크게 유행했던 안동의 경우에도 가창재사, 송실재 등 초기 재사를 기점으로 점차로 규모가 확장되어 강당과 주사의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고 누마루를 건립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다가 후기로 가면서 대규모의 재실을 건립할 동거나 필요성이

34) 영남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유사 사례를 선행 연구에서 찾아보면 전남의 원당재, 오남재, 영모재, 전북의 영송재, 관한재, 이로재, 영모당, 귀후재, 충청지역의 영모재 등이 있다. 대체로 19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된 사례들로, 시대적인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선, 김숙영, 김동인, 김지민 등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다.

사라지게 되어 소규모 재실이 주류를 이루는 양상이었다.<sup>35)</sup>

요컨대, 고령지역의 일자형 재실은 민가형 혹은 강당독립형으로 지칭되는 유형에 속하며 정면의 칸수를 확대하는 경향, 방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비대칭적 구성이 보편적인 양상을 가진다. 지역적으로는 경북남부와 경남북부에 걸친 형식으로,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이후 소규모 재실이 유행하는 시대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령지역 고건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도적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 IV. 맺는말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고령 고건축의 분포양상과 주도적 건축유형인 일자형 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명 고령은 통상적 의미의 고건축 유산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다. 현존하는 18세기 이전의 사례도 소수일 뿐이고 건축유형에 있어서도 일부 가옥 및 종교, 교육시설을 제외하면 재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고령의 고건축은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고령의 지역성이라 지칭할 만한 특징도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는 연령에만 놓여 있지 않다. 어쩌면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일자형 재실이 폭발적으로 건립되며 고령의 대표적 건축유형으로 자리 잡았던 사실 그 자체가 고령 고건축의 솔직한 면모이자 주목해야 할 특징이다. 재실의 영건이 문중의 현창사업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조선후기의 씨족중심 향촌사회가 갖고 있던 속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좌우 대칭의 고전적 담론보다 민가형 재실유형을 선택하고 정면 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실의 의장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태도에서는 현실

35) 유기원, 앞의 논문, 결론부.

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합리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재 지정 여부에만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옛 기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고 현 시점에서의 가치를 발견하여 다각도의 보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정보화시스템(<http://www.chis.go.kr>).
- 대한건축학회 + 한국건축역사학회 편,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보고서, 문화재청, 2005.』
- 신중환, 정동락, 「고령지역의 유교건축」, 『고령문화사대계』 2권 사상편, 2008.
- 고령문화원, 『고령의 서원과 정·재』, 만인사, 2003.
- 고령군, 『고령군지』, 1996.
- 고령군 등, 『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1997.
-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북서원지』,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경상북도의 향교건축-남서부편』, 2002.
-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224.
- 김동인, 경상남도 재실건축연구, 고신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3집, 1993. 12.
- 김동인, 전라남도 재실건축연구, 고신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4집, 1994. 12.
- 김동인, 전라북도 재실건축연구, 고신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6집, 1996. 12.
- 김동인, 조선시대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동인, 충청도지역 재실건축연구, 고신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8집, 1998. 12.
- 김숙영, 전북지방 재사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론, 2006.
- 김숙영·홍승재, 「전북지방 재사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4호, 2006. 4.
- 김지민, 「전남지방의 재실건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3호, 1997. 3.
- 오용원, 「고령 누정의 문학적 해석과 공간 기능」, 『고령문화사대계』 3권 연구편, 2009.

- 유기원, 안동문화권 재실건축—건축적 형식과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
- 이상선, 전남지방 재실의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론, 2003.
- 이 정, 전라남도 재실공간의 입지와 경관특성, 남도문화연구 7집, 2001. 12.
- 이 정, 조선시대 재실공간의 입지 및 공간구조특성 분석—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67호, 1997. 10.
- 이 정, 조선시대 재실공간의 경관 및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 박론, 1996.
- 이정자, 경남 밀양지역 재실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밀양대 석론, 2003.
- 전병일, 제례공간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충청도 지방의 재실을 중심으로, 대전대 석론, 2002.
- 천득염 · 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 기문당, 2002, p.243.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Jae-sil Buildings of Go-Ryung

Cho, Jae-Mo

This study is on the characteristics and stat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of Go-Ryung area. The main texts are list of cultural assets designated by government and the data for investigation of 2005. In addition, several other lists from the area studies' institutions are also referred. The traditional architectures of this area are not attended by scholars in architectural historians group because of their comparatively young ages and total amount. The number of the designated cultural assets is small. Most of them are Jae-sil buildings built at 19th century and located in at SsangLim-Myun. Their locations might be influenced by traffic route and population.

Jae-sil architecture is the important object for the research of architectural history. Jae-sil is the servant building for the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It was popularized at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Till now, researchers have concerned about only □-shaped typical Jae-sil of An-dong area, but I-shaped Jae-sil of Go-Ryung area could be understood as the unique type of this area. This kind of I-shaped Jae-sil became widespread building type explosively at 19th century. It was influenced by the social and architectural condition. Even though the 19th century's trend of Jae-sil could be regarded as the method for the pride of family that had been sustained in the village society through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also in the modern and rational tendency. We can see this feature at the asymmetrical plan like folk houses, long façade and so on.

For understanding the featur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of Go-Ryung,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itself that the I-shaped Jae-sil had been built explosively during the 19th century and it could

be the major building type in this area.

Key Word

Jae-sil, architecture, façade, asymmetrical plan, 19th century, late Joseon dynasty

▪ 논문투고일 : 2009.12.9. 심사시작일 : 2009.12.10. 심사완료일 : 2009.12.18.

**【 부 록 】 고령지역 고건축 2차 조사대상**

연번	명칭	소재지	연대	연번	명칭	소재지	연대	연번	명칭	소재지	연대
31	조양재	개진면 구곡리	1900	76	오로재	덕곡면 노리	1932	121	죽암정	쌍림면 신곡리	1887
32	구곡재	개진면 구곡리	1956	77	만모재	덕곡면 노리	1937	122	박곡재	쌍림면 신곡리	1957
33	원천재	개진면 구곡리	1964	78	옥산재	덕곡면 반성리	1915	123	경언재	쌍림면 신곡리	1990
34	운천재	개진면 반운리	1912	79	반원재	덕곡면 반성리	1967	124	용암재	쌍림면 신촌리	1920
35	경모재	개진면 반운리	1942	80	이로재	덕곡면 반성리	1969	125	암벽정	쌍림면 신촌리	1938
36	추모재	개진면 반운리	1950	81	승덕재	덕곡면 반성리	1982	126	반곡재	쌍림면 용리	1946
37	성동재	개진면 생리	1911	82	승덕재	덕곡면 반성리	1982	127	용암재	쌍림면 용리	1964
38	관경재	개진면 생리	1964	83	유호재	덕곡면 반성리	근래	128	홍산재	쌍림면 월막리	1806
39	안강재	개진면 신안리	1925	84	농은재	덕곡면 백리	1919	129	예곡재	쌍림면 월막리	1839
40	도은재	개진면 오사리	1970	85	백록재	덕곡면 백리	1919	130	삼우정	쌍림면 월막리	1933
41	추모재	개진면 옥산리	1915	86	운암정	덕곡면 본리	1994	131	와운정	쌍림면 평지리	1934
42	추원재	개진면 옥산리	1901	87	모의재	덕곡면 본리리	1942	132	매천재	쌍림면 평지리	1950
43	백봉재	개진면 옥산리	1956	88	예동재	덕곡면 예리	1914	133	미산재	쌍림면 하거리	1885
44	인산재	개진면 인안리	1967	89	봉산재	덕곡면 옥계리	1848	134	송애재	쌍림면 하거리	1920
45	이남재	개진면 직리	1934	90	삼우재	덕곡면 옥계리	1958	135	학매정	쌍림면 하거리	1928
46	이수정	고령읍 고아리	1921	91	삼로당	덕곡면 원송리	1942	136	회은정	쌍림면 하거리	1988
47	수양재	고령읍 내곡리	1942	92	승암재	덕곡면 울리	1920	137	매은정	쌍림면 하거리	1988
48	일양재	고령읍 내곡리	1948	93	용암재	덕곡면 후암리	1980	138	은송정	쌍림면 합가리	1959
49	동연재	고령읍 내상리	1812	94	영암재	성산면 강정리	1995	139	노동재	쌍림면 합가리	1889
50	청남암	고령읍 내상리	1986	95	고산재	성산면 고탄리	1967	140	용강정	쌍림면 합가리	1915
51	미산재	고령읍 본관리	1900	96	경목당	성산면 고탄리	1970	141	돈모재	우곡면 답곡리	1831
52	사화정	고령읍 본관리	1926	97	경모재	성산면 기산리	1832	142	운고재	우곡면 대곡리	1908
53	삼우당	고령읍 본관리	고종	98	원후재	성산면 대흥리	1940	143	경학재	우곡면 대곡리	1944
54	의재	고령읍 본관리	선조	99	이로재	성산면 무계리	1902	144	낙락당	우곡면 도진리	1536
55	삼모재	고령읍 신리	1967	100	모의재	성산면 무계리	미상	145	경매정	우곡면 도진리	1668
56	경송정	고령읍 장기리	1941	101	남취재	성산면 무계리	미상	146	남외구거	우곡면 도진리	미상
57	추원재	고령읍 중화리	1900	102	봉강정	성산면 사부리	1935	147	모현정	우곡면 도진리	선조
58	농원재	고령읍 중화리	1902	103	경효재	성산면 삼대리	1616	148	남고정	우곡면 도진리	효종
59	정강재	고령읍 중화리	1918	104	추원재	성산면 삼대리	1960	149	봉양재	우곡면 봉산리	1908
60	구목재	고령읍 중화리	1922	105	사망정	성산면 삼대리	현종	150	추원재	우곡면 사천리	미상
61	영모정	고령읍 중화리	1932	106	윤수재	성산면 상용리	1920	151	모가정	우곡면 사천리	1908
62	송곡재	고령읍 지산리	1904	107	죽림재	성산면 상용리	1935	152	삼정재	우곡면 속리	1904
63	용화재	고령읍 지산리	1904	108	추모재	성산면 상용리	1949	153	백세당	우곡면 속리	1910
64	매원재	고령읍 지산리	1942	109	용암재	성산면 상용리	1956	154	승유재	우곡면 야정리	1902
65	용강재	다산면 광촌리	1961	110	추모재	성산면 상용리	미상	155	어묵정	우곡면 예곡리	미상
66	취원정	다산면 광촌리	미상	111	어곡재	성산면 어곡리	1958	156	매곡정	운수면 대평리	1782
67	덕산재	다산면 나정리	1919	112	오봉재	성산면 오곡리	1919	157	추원재	운수면 봉평리	1910
68	경효재	다산면 나정리	1962	113	봉오재	성산면 오곡리	1920	158	경모재	운수면 신간리	1932
69	덕산재	다산면 벌지리	1957	114	망미재	성산면 오곡리	1965	159	삼학재	운수면 운산리	1932
70	명성재	다산면 벌지리	미상	115	소야재	성산면 오곡리	1977	160	경모재	운수면 월산리	1936
71	동산재	다산면 벌지리	미상	116	묘원재	성산면 용소리	1967	161	월암재	운수면 월산리	1980
72	경심재	다산면 송곡리	1914	117	경희재	쌍림면 매촌리	1960	162	모덕와	운수면 유리	1986
73	다산재	다산면 월성리	1968	118	석촌재	쌍림면 백산리	미상	163	내화재	운수면 화암리	1922
74	월주재	덕곡면 가물리	1930	119	추모재	쌍림면 산주리	1887				
75	승암재	덕곡면 가물리	1920	120	옥계정	쌍림면 송림리	미상				